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보 도 자 료

보도

2020. 10. 05.(월) 조간부터

배포

2020. 9. 29.(화)

책임자

글로벌보험센터
김석영 센터장(3775-9029)

작성자

김석영 선임연구위원(3775-9029)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담당역(3775-9115)

총 3매

보험연구원, 「해외 보험동향 2020년 가을호」 발간

- ☐ 보험연구원의 글로벌보험센터는 『해외 보험동향 2020년 가을호』를 발간하였음
- ☐ 본 보고서는 해외 보험산업의 제도 현황과 시장 현황 등 해외 보험산업의 최신 정보를 제공함
 - 미국, 유럽, 일본, 중화권, 동남아 시장의 정보와 보험산업 통계를 제공함
 - 특집으로 동남아 타카풀 시장과 일본 판매채널을 다룸
- ☐ 미국 보험시장에서는 최근 미국 내 성소수자, 성별, 인종에 따른 차별금지 관련 조치들이 있었음
 - (성 소수자) 주요 주(州) 보험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차별금지 보호규칙 변경안에 따른 대응을 발표함
 - (성별) 캘리포니아 보험국은 통제할 수 없는 개인적 특성인 성별이 보험 등급 및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규정을 변경함
 - (인종) NAIC는 보험 분야에서 인종에 따른 구조적 차별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대응책을 발표함
- ☐ 유럽의 이케아(IKEA)는 스위스리(Swiss Re)의 iptiQ와 협력하여 ‘HEMSÄKER’라는 보험상품을 자사제품과 함께 판매하기 시작함
 - 해당 보험은 가족 및 거주자 모두에게 화재, 강도 또는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고 및 가구의 손상과 개·보수 등을 폭넓게 보장함

- 이케아는 향후 이케아 매장에서 판매되는 가구 및 식재료 외에도 관련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현상은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유통 및 판매채널로서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각 회사별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어 기존 보험회사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

□ 일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갑질 행위에 대한 관심 증대와 방지 관련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피해를 보장하는 기업성 보험상품 개발이 확대되고 있음

- 괴롭힘·갑질보험은 직장 내 상사·동료 등으로부터 근로자가 괴롭힘·갑질 피해를 입을 경우 기업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근로자의 배상 책임 청구에 대비하는 기업성 보험상품임
- 동 상품은 성희롱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이 개발된 이후 직장 상사 갑질, 거래처 갑질, 임신·출산 직원 왕따, 육아·간병 직원 왕따, 낯새로 괴롭히는 행위, 소비자 갑질 등으로 보험사고 범위가 확대됨
- 손보재팬이 2015년 처음으로 개발한 이후 대형 손해보험회사로 확대되고 있으며, 대형 4개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한 신계약 건수는 2015년 1.7만 건에서 2019년 6.6만 건으로 급증함

〈표〉 최근 일본 손해보험회사의 괴롭힘·갑질보험 상품 차별화 현황

회사명	판매시기	주요 보장 확장 내용
미츠이해상	2019.10	거래관계사 또는 자회사 종업원의 배상 청구 시 추가로 보장
아이오이손보	2019.10	
토쿄해상	2020.1	고객 성희롱, 거래회사에서의 클레임 등으로 종업원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 비용, 변호사 비용 등 보장
손보재팬	2020.2	moral·power·maternity·care harassment를 추가로 보장

□ 중국은 보험시장의 대외개방을 확대하여 외국 보험회사에게 시장진출의 기회를 제공함

- 2019년부터 중국 정부는 중국법인 설립요건 완화, 생명보험회사 소유 제한 폐지, 영업지역 제한 폐지 및 자산운용 규제 개선과 같은 외국 보험회사의 중국 보험시장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하였음

- 이에 따라 일부 외국 보험회사들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합작 중국법인의 중국 주주 지분 인수 및 중국법인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호주 금융서비스위원회는 호주 정신질환 관련 주별 정보를 공개함

- 2019년 호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정신질환은 우울증(단발성 혹은 재발성)으로 전체 정신질환 중 16.5%의 비중을 차지함
- 호주 생명보험회사는 2019년 정신질환 관련 보험금(영구장애보험 및 소득보상보험)으로 약 12억 4,000만 호주달러(약 1조 840억 원)를 9,500여명의 보험금 청구자에게 지급하였음(전년 대비 약 268% 증가)
- 호주 생명보험회사의 정신질환 관련 보험금 부담은 점차 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외에도 대만 예금보험제도 변화, 유럽 금융서비스 분야 디지털 전략, 싱가포르 고액자산가를 위한 생명보험회사 지점 설립, 코로나19 단신 등이 다루어짐

첨부: 보고서 “해외 보험동향 2020년 가을호”. 끝.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